

# 40년 무대인생 베테랑 <라이온 킹> 컴퍼니매니저

클\_김준영 (런던통신원, 런던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런던 라이시엄 극장 <라이온 킹>의 '심바' ©Disney



1994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기초해 영국의 살아 있는 팝의 전설 엘튼 존(Sir Elton John, 가수 겸 작곡가, 사회운동가)과 역시 영국이 자랑하는 작가 겸 작사가인 팀 라이스(Sir Tim Rice)가 만나 탄생한 스테이지 뮤지컬 <라이온 킹>이 런던 오픈 17년을 맞이해 컴퍼니매니저를 교체하고 다시 한 번 작품의 품질 관리에 나섰다. 그래서 디즈니 프로덕션 홍보팀의 협조로 새로 영입된 컴퍼니매니저 데이비드 컬(David Curl)을 만나 미니 인터뷰를 통해 런던 웨스트엔드 대형 상업 공연 속 컴퍼니매니저의 세계를 들여본다.

## 데이비드 컬과의 미니 인터뷰

(장소: 라이시엄 극장 VIP 라운지)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마흔 열일곱(57세를 어리게 표현) 런던너(Londoner)이고 공연 분야에만 40년 정도 몸담고 있다. 대학에서 공연 분야 작곡을 전공했지만 뮤지션보다는 배우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 왕립드라마스쿨(RADA)에 재입학했다. 여전히 리허설 단계에 매력을 버릴 수 없어 졸업 후 무대감독 보조로 일하면서 런던에서 작품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무대감독직을 맡게 되었고 런던에서만 뮤지컬 <그리스>, <위 윌 락 유>, <토요일 밤의 열기> 그리고 매튜 본의 작품을 맡아왔다. 2008년부터 컴퍼니매니저로 웨스트엔드 공연 <카바레>, <더티 댄싱>, <고스트>, <유린타운>, <맘마미아>를 거쳐 이번에 <라이온 킹>으로 자리를 옮겨 왔다.

무대감독(이하 SM)과 컴퍼니매니저(이하 CM) 역할에 차이가 있다면 본인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비교해달라.

한국에서는 어떠한지 잘 모르겠지만 영미권에선 분명한 차이가 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연이나 연극 작품엔 CM을 두지 않고 SM이 총괄한다. 하지만 마케팅과 매표 직원을 제외하고도 직원만 150여 명인 <라이온 킹>같은 규모가 큰 공연엔 SM팀에만 6명이 있을 정도로 업무를 나누게 되는데 주로 무대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반면 CM의 역할은 크게 보면 프로듀서의 의도를 배우를 포함한 모든 제작팀에 양방향으로 전달하는 전령과 같은 존재이다. 이번에 배우가 한번에 17명 정도 교체된다. 새롭게 합류하는 배우들과 남아 있는 배우들의 출퇴근 관리, 건강 상태, 휴가 및 병가로 인한 배역 조정 등을 살펴 리허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규정을 위반한 배우들의 징계, 공연 중 부상을 대비한 의료진 스케줄, 대외 홍보까지 준비해야 하니 부모의 역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CM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현재 활동 중인 CM의 남녀성비는 어떻게 되는가? 공연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특별한 자격을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곳 런던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SM출신들이 돋보인다. 아마도 공연을 만들어 가는데 각 부문별 이해도가 높고 또 SM을 통해서 기술적인 면을 알게 되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연스럽게 있을 것이다. 공연 제작 환경이 다분히 남성 중심적인데 반해 CM은 이 부분에서 자유롭다 하겠다. 육체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직종이고 현재 남녀비율은 5:5정도 된다.

그렇다면 CM을 통해 공연의 모든 과정을 인지하게 되면 프로듀서로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CM은 없었던 무엇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듀서와는 전혀 다른 길이라 하겠다. 예외적으로 영국국립극장에서 SM을 해왔던 소냐 프리드먼(최근 5시간짜리 장편 연극 <해리포터>의 성공으로 영미권 최고의 여성 파워 프로듀서)이 프로듀서가 된 경우를 제외하면 CM에서 프로듀서로 전향한 것을 본 적은 없다. 우리 CM은 조력자 역할을 잘하는 성향의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싶다.

2014년 9월 통계를 보면 영상, 무대작품을 통틀어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매표 기록을 세웠는데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을 넘기는 수치였다. 디즈니만의 관리법이 있는가?

알다시피 디즈니는 미국 회사이다. 작품이 인기를 얻어 장기 공연이 이루어질 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들의 매너리즘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따라서 기술팀과 품질관리팀의 정기적인 방문이 있다. 흐려질 수 있는 작품의 완성도 및 배우의 연기에 임하는 진지한 정도를 객석에서 체크하는 것인데, 순찰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마침 최근 런던 웨스트엔드에 신작 <알라딘>이 오픈했다. 한 번 방문으로 두 작품을 모두 감찰하고 있다. 또 최근엔 배우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끝으로 CM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조언을 부탁한다.

모두가 배우가 될 순 없다. SM과 달리 우리 CM은 아직 조합이 없다. 우리를 대변해주는 장치가 없어 조금 외롭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오래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 생각한다. CM 인터뷰에서는 경험을 중시한다. 앞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공연 경험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경험이 많아야 한다. 배우들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프로듀서의 요청을 받아 제작팀원들을 가이드 해줘야하니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 무대의 기술적인 과정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이온 킹>은 1997년 브로드웨이 그리고 1999년 런던 초연 후 약 22개의 제작팀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8천만 관객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즐거운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 한 편의 공연으로 스타덤에 올랐던 연출가 줄리 테이모어(63, Julie Taymor)는 세계 공연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으나 2011년 뮤지컬 <스파이더 맨>의 실패(리허설 도중 배우들의 잦은 안전 사고로 감독직에서 해고)로 이젠 런던과 뉴욕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연출가가 되었다. 남성 위주의 프로듀서들과 남성 중심의 연출가들 틈에서 한 번 실패하면 여성에게는 재기할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다고 한 최근 언론 인터뷰가 아쉬움을 더하는 가운데 성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분야에서 장차 한국인 CM의 해외 진출을 기대해 보고 싶다. 📌



<라이온 킹> 컴퍼니매니저 데이비드 컬 ©허승민



<라이온 킹> ©Brinkhoff and Mogenburg



<라이온 킹>의 '날라' ©Brinkhoff and Mogenburg